

특별기획

김제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제 성덕면, 생활체조 소개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10일 오후 3시 30분, 성덕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로운 주민자치프로그램인 생활체조교실을 50여명의 참여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덕면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였다. 수요조사결과,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백연월 강사는 생활체조교실 신청자 50여명에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초생계급여 예산 전년대비 17억원 증액 편성

김제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73%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의 29~80%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예산을 전년대비 17억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다. 이에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수급권자의 구별 여건에 맞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특별히 도움을 주고 있다.

김제시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는 7,728명으로 2017년 선정기준 확대에 인하여 맞춤형 급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제시는 대상자 발굴을 위

하여 제도가 도입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맞춤형급여 통합조사관리업무에 총력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맞춤형 급여가 시행 된지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도가 더욱 내실 있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현재까지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혜택을 주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공공이' 정책토크쇼 진행

주민 중심 경청 토크쇼

"지속·연속성 확보 최선"

김종규 부안군수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 실현 등을 위한 '공공이(공식적, 공개적, 이색적)' 정책토크쇼를 10일 부안읍과 주산면을 시작으로 19일 동진면과 위도면면을 마지막으로 진행한다.

읍면 연초방문을 대신해 진행되는 이번 공감토크쇼는 2017년 군정 계획 및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읍면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관행적인 연초방문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마을지도자, 소외계층 등과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갖고 양방향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토크쇼는 면정 주요 사업 설명 및 군정비전 공유, 군수 중심 토크쇼 등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한 면정 주요 사업 설명과 6차 산업 추진사례 등 우리동네 공감 이야기, 주민의견을 경청하는 정책토크쇼 등으로 개선돼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크쇼는 사

전에 주민과 행정간 토론회를 거쳐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찾고 토크쇼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 해결점을 찾는 소·공·동 주민 참여 군정 실현의 좋은 사례"라며 "모든 정책과 사업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가져오는 만큼 정책토크쇼에서 제시된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정책의 지속·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읍면별 일정은 11일 줄포면, 12일 행안·변산면, 13일 계화·진서면, 17일 상서·하서면, 18일 백산·보안면, 19일 동진면·위도면 등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하서면 - 하서농협

아동급식지원 협약체결

부안군 하서면(면장 이동근)은 10일 하서농협협동조합과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부식 지원에 대한 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성장기 아동들에게 균형있고 신선한 영양공급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일 1식 부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서면은 23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부식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함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교월동, 통장회의 개최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환)은 10일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52개 마을 통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유년 새해 첫 통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년 동안 각 마을을 이끌어 가게 될 신임통장 32명을 비롯한 총 4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제지평선축제의 전국 최초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등 지난 한 해 거둔 시정·동정업무 성과보고와 업무담당자별 현안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하여 모든 주민들이 방역활동 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동진면 고석종씨

쌀 10kg 들이 100포 기탁

부안군 동진면 동진리에서 농사를 짓는 고석종(54)씨는 올해 생산한 10kg 짜리 백미 100포를 관내 어려운 세대에 전달해 달라며 면사무소에 전달하였다.

고석종씨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가까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선숙 면장은 "지역의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중기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

정읍시, 지원시책 담은 안내 책자 발간

정읍시가 올해 중소기업에 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환경 개선에 나서는데 등 '기업하기 좋은 자립도시 만들기'에 주력한다.

시는 345개 업체(지난해 12월 기준)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기업경영 활동을 전반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주요 기업지원 시책을 담은 안내 책자 900부를 제작했다.

16절 규격 58페이지인 이 책자에는 '정읍시의 기업지원 시책'과 함께 전북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전북지식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의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시책을 담고 있다.

책자는 또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 현황과 공장실업, 그리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안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분야 안내 등의 내용도 실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업체 당 3억원 이내(연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이고, 이차보전은 2%,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균분상환(8회)이다.

15개 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중소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내의 박람회 참가 지원과 함께 수출초기업 비즈니스 매칭 지원사업(이하 비즈니스 매칭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신성장공약과 바이어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스 임차료와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 등 업체 당 국내는 200만원, 해외는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신청 업체는 100%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민방위교육과 시민강좌 강사 위촉장 수여

역사강좌·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실시

정읍시가 10일 2017년 민방위교육과 시민강좌 강사 10명을 선발·위촉하고 시민강좌 일정을 밝혔다.

이날 위촉된 강좌별 강사는 ▲다시 보는 역사 바로 서는 민족정기, 이갑상 ▲급변하는 안보 현실과 민방위대

원의 사명, 최병륜 ▲동학농민혁명과 역사관, 조광현이다.

또 ▲전라북도의 근현대 인물 이야기, 김재영 ▲정읍의 고대문화 탐방, 광형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안보의식 재확립, 현수연 ▲태산선비의 학문

과 종류 전통, 유종국 ▲화생방 보호 및 방독면 착용요령, 이은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김정욱 ▲지진 대비 요령, 이우경이다.

시는 올해 시민강좌와 관련해 "시민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와 자주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방호 능력과 생활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강좌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주민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홍망성쇠의 역사, 시민의 안위를 말하다'란 주제의 강연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화생방 보호 및 방독면 착용요령, 지진대피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생활과학고실 수강생 모집

반별 20명씩 2개반

13일까지 신청 접수

김제사랑장학재단은 10일 체험형 과학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2017년 제1기 생활과학고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과학고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학고실은 지평선학당에서 개

설되며, 오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10주에 걸쳐 운영된다. 반별 20명씩 2개반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되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오는 13일까지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비와 재료비 4만원만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수강생에게는 교재비 및 재료비 전액을 면제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 540-2989) 및 원광대학 산학협력단(☎ 850-7127)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청정함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3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 | 375ml 2ea/13%

부안강산 생주
Premium Ob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